

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50 KBS 스포츠 타임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당신 잠 예쁘다>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특집다큐 도시와 쓰레기-2부	40 아침 연속극 <미쓰 아줌마>
30 KBS 뉴스	00 생활의 발견 오김도 20 아침드라마 <두근두근 달콤>	9 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20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00 여유만만	10	40 SBS 뉴스
00 여성공간 55 바른말 고요말	00 지구촌 뉴스 20 TV 특강 (재)	11 00 특집다큐 유배-1부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 12	00 인간극장 스페셜 1~2부 (재)	12 00 MBC 뉴스 15 다문화 희망 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어인>	00 SBS 12 뉴스 30 KBC 정책대담 이후로 교과부장관에게 들는다
00 KBS 걸작선 <사랑을 믿어요>(재)		1 05 경제매거진 M(재) 50 스포츠 특선(재) CJ슈퍼패리스	30 도전! 슈퍼대디
00 KBS 뉴스 10 KBS 중계서	10 퀴즈쇼 사촌사(재)	2 40 공감 특별한세상 스페셜 55 왕중군의 아름다운 초대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 고향이 보인다 -광주
	00 KBS 뉴스타임 05 엘리먼트 헌터 (재) 35 미카미우스 클럽하우스	3 50 MBC 뉴스	10 생방송 2011 총장추천제 거리퍼레이드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보물섬-제주	00 TV 유치원 30 달기가 좋아	4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마법천지문	00 안녕 자두야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세상은 넓다	00 사랑의 가족 30 희망 릴레이	5 00 수목미니시리즈 <지고는 못살아>(재)	00 SBS 뉴스페어데 15 KBC 저녁뉴스 30 초티콤 헬검 투 가오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6 00 6시 뉴스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 7 30 러브인 아시아	00 생생 정보통	7 45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다리의 역습>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당신이 잠이 사이>
25 일일연속극 <우리집 여자들>	20 생방송 세계는 지금 50 1대 100	8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며느리>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F1그랑프리 특집다큐
00 KBS 뉴스 9	50 KBS 뉴스타임 55 월화 드라마 <포세이돈>	9 55 MBC 월화특별기획 <계백>	55 월화드라마 <무사 백동수>
00 시사기획 KBS 10 50 아름다운 사람들		10	
00 KBS 뉴스 라인 40 명작스캔들	05 김승우의 승승장구	11 15 PD수첩	15 김성장
25 KBS 뉴스 35 KBS 네트워크 기획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 특강	12 10 MBC 뉴스 24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MBC 프라임 <스마트, 세상을 바꾸다>	50 나이트 라인

공유 주연 '도가니' 주말극장 흥행 1위



공유·정유미 주연의 '도가니'가 주말 밤스오프에서 1위를 차지했다.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2일 개봉한 '도가니'는 지난 23~25일 전국 659개 상영관에서 68만5천784명(48.9%)을 모아 1위를 차지했다. 박해일 주연의 '최

종병기 활'은 394개 상영관에서 14만 9183명(10.6%)을 동원해 2위를 기록, 1주간 차지했던 1위 자리를 내줬다. 지난달 10일 개봉한 이 영화의 누적 관객은 704만286명으로,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가운데 '써니'(744만명)에 이어 2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22일 개봉한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컨테이션'은 235개관에서 11만1천 932명(8.0%)을 모아 3위를 차지했고, 302개관에서 8만5천808명(6.1%)을 동원해 4위다. '파퍼씨네...'의 누적관객은 84만8천949명이다. '가문의 영광 4 : 가문의 수난'은 335개 상영관에 7만4487명(5.3%)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지난 22일 개봉한 '킬러 엘리트'는 264개관에 7만238명(5.0%)으로 6위다. 추석을 앞둔 지난 7일 개봉한 '가문의 영광 4'의 누적 관객은 228만3806명. 오는 29일 개봉을 앞두고 유료 시사를 통해 소개된 '의뢰인'과 '카운트 다운'이 7~8위를 차지했다. 이정주·박희순 등이 출연한 '의뢰인'은 203개관에서 6만1천74명(4.4%)을, 전도연·김 캐리 주연의 '파퍼씨네 핑크들'은 212개관에서 3만2100명(2.3%)을 모았다. 이밖에 권상우 주연의 '동중'(2만4천591명, 1.8%), 차태현 주연의 '웹프'(1만7천824명, 1.3%)가 10위 안에 들었다. /연합뉴스

새터민 학생들의 남도여행

MBC 다큐 내일 오후 방송

MBC는 다큐멘터리 '새터민 학생들의 남도여행'을 오는 28일 오후 2시5분 방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MBC와 MBC나눔 주최로 지난 5~7일 2박3일간 진행된 탈북 청소년들의 남도 여행을 담았다. 드림학교, 셋넷학교, 한국학교 등 대안학교 8곳에서 온 탈북 청소년 180여명은 경남 진해, 거제, 통영과 전남 벌교를 돌며 남해의 경관을 즐겼다. 이들은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 군함을 견학하고 생도들과 협동 공연을 열었으며 거제포로수용소를 찾아 부단의 역사를 되짚는 시간도 가졌다. /연합뉴스

제20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직장인빅대회

기분에 치우쳐 역습을 불렀다

2회전 2국 6분(118~142)

白 조시균 5단 (전남교사회)

黑 강상원 5단 (한국전력)

<참고도>

조시균 5단도 이곳의 압박을 무으로 느끼고 일단 118, 120으로 이단졌거게 반발해본다. 이때 흑이 121, 123으로 백 한점을 잡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세로 보였다. 그런데 이것이 기분에 치우친 수로 백의 거센 역습을 부르게 된다. 흑 123으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늦추는 것이 냉정했다. 백 2로 잡으면 3으로 두어 상변을 견제한다. 이것이라면 무난한 흑의 우세다. 흑 석에는 또 '가'로 나가는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EBS		
06:0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10:00 최고의 요리비결 <박경신의 제철밥상>	16:20 장남갑 나라의 노디
06:30 신나는 인성 5678	10:30 60분-부모	16:35 뽀뽀뽀 보로로 (재)
07:00 오스카의 오아시스	11:30 미션퀴즈	16:50 방구대장 뽀뽀 (재)
07:10 정글북	12:00 EBS 정오 뉴스	17:00 꼬마거북 프랑클린 (재)
07:35 꼬마기관차 토마스와 친구들	12:10 TV 평생대학-역사이야기	17:15 숲 속 친구 피파돌라 (재)
07:45 뽀뽀뽀 보로로	13:00 세계대미기행 <인도의 영웅 불리버아>	17:30 코코몽2 (재)
08:00 뽀뽀뽀 유치원	13:40 신나는 인성 5678 (재)	17:45 로보카 풀리 (재)
08:20 로보카 풀리	14:10 EBS 다큐프라임 (재)	18:00 톡톡 보니 하니 1
08:35 숲 속 친구 피파돌라	15:00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중급)	18:05 우렁랑탕 아이쿠
08:50 뽀뽀뽀 친구	15:30 꾸러기 상상여행	18:15 톡톡 보니 하니 2
09:00 방구대장 뽀뽀	15:55 아이 고릴라 동동	18:20 과학이 특특!
09:10 코코몽 2	16:00 뽀뽀뽀 유치원(재)	18:30 톡톡 보니 하니 3
09:25 꼬마거북 프랑클린		18:35 미술 탐험대
09:40 팀가방 이야기		18:45 톡톡 보니 하니 4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4:10 EBS 포스 <김경현의 적본과 통계>	12:10 2011 FINAL 실전모의고사 <한문백의 화학 I>
05:00 FINAL 실전모의고사 <윤운규의 사회·문화>	13:00 <최태성의 한국근현대사>
05:50 <윤희석의 경제>	14:00 <강봉균의 한국지리>
06:40 <김기훈의 언어영역>	15:00 EBS 탐사선 <여원중의 생물 I>
07:30 EBS 포스 <최수일의 기하와 벡터>	16:00 <한정철의 생물 II>
08:20 EBS 탐사선 <김지은의 경제지리>	17:00 EBS 기본과 특별한 (재) <곽정원의 수학기초>
09:10 <김중국의 경제>	18:00 <조연의 한국사>
10:00 공부의 왕도	19:00 2011 FINAL 실전모의고사 <차영의 물리 II>
10:30 EBS 초대석	20:00 <양진석의 화학 II>
11:20 EBS 내선 6강 <정승제의 수학기초>	21:00 <정현경의 수리 나형>
	22:00 <고동국의 수리 기형>

우리말 나들이	굿모닝 잉글리쉬	니하오 쑹구위	오하오우 니혼고
<p>관여/간여</p> <p>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제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어머니 말씀 중에 자주 간여하지 마세요.</p> <p>더는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와 더는 남의 일에 '간여하지 마시오'는 둘 다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혼동되는 단어입니다.</p> <p>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맞습니다. '관여하다'는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다'는 뜻이고, '간여하다'는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견하다'는 뜻입니다. 이 두 말은 일정한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 명확히 구별되어 쓰이지 않고 서로 넘나들어서 쓰이고 있습니다.</p> <p>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별하여 써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여 : 어떤 사건에 관여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 간여 : 동태표가 말씀하신 중에 자주 간여하지 마십시오. 	<p>What are you into? 좋아하는 것이 뭐죠?</p> <p>A : Nully, have you sampled the night life here?</p> <p>B : I have been out two or three times, but I'm sure there is more to see.</p> <p>A : Of course there is. In that case, I'll have to take you out.</p> <p>B : That's great. Anywhere special you are taking me?</p> <p>A : Depends on what you like. What are you into?</p> <p>A : 널리 써, 이곳 야간 생활을 체험해 보셨어요?</p> <p>B : 두세 번 외출했었어요, 하지만 분명 볼만한 것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p> <p>A : 당연히 있지요. 그런 경우라면 제가 당신을 모시고 나가야 할 것 같네요.</p> <p>B : 정말 좋아요. 어떤 특별한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갈 거죠?</p> <p>A : 당신의 취향에 달린 거죠. 좋아하는 것이 뭐죠?</p> <p>* sample : 시식(시음)하다. 한번 겪어보다</p> <p>* in that (such a) case = 그러한 경우에는</p>	<p>大草包 dàcǎobāo</p> <p>큰 가마니가 무능력자라고?</p> <p>'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包'는 포대이나 가방의 뜻이고, 가방(包)에 풀(草)을 더한 草包는 풀로 만든 포대라는 의미로 짚풀을 이용하여 짠 가마니를 말합니다. 거기에 큰 대를 붙이면 큰 가마니가겠지요. 이 큰 가마니가 중국어 관용구에서는 무능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을 말할 때 씁니다. 얼기설기 짜여 있어서 안에 물건을 넣어두어도 틈사이로 작은 물건이 쉽게 빠져나와 자기 실수를 못 지키는 커다란 가마니.</p> <p>"이거 가만히 있으니 누굴 가마니로 아냐?" 라고 말할 때 쓰는 언어유희속의 가마니가 중국어 大草包와 연관이 될 줄이야.</p>	<p>まいにちべんきょう 毎日勉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p> <p>매일 공부해야 합니다</p> <p>A : 一日何時間くらい日本語を勉強したらいいですか.</p> <p>B : 毎日2時間くらいは勉強しないと いけませんよ.</p> <p>A : では、日曜日でも勉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p> <p>B : そうですね。日曜日は勉強しなくてもいいです.</p> <p>A : 매일 몇 시간 정도 일본어를 공부해야 합니까.</p> <p>B : 매일 2시간 정도는 공부해야 합니다.</p> <p>A : 그럼 일요일도 공부해야 합니까.</p> <p>B : 글썩요. 일요일은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p> <p>[단어정리]</p> <p>~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p> <p>~なくてもいいです. ~하지 않아도 됩니다</p> <p>~たらいいですか. ~하면 됩니까</p>
<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7일(음 9월 1일 乙酉)

子

36년생 인과공부의 세상 이치에 놀랄 것이다. 48년생 단골 점포를 찾다 보면 의외의 이익이 따를 것이다. 61년생 외로운 문사기 빛을 받을 수 있다. 73년생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버려라. 85년생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안에서의 평안을 유지하라. 행운의 숫자 : 19, 91

丑

37년생 현재나 친척과 회담이 있겠다. 49년생 불행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을 함부로 필요없다. 61년생 오랜 문사기 빛을 받을 수 있다. 73년생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버려라. 85년생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안에서의 평안을 유지하라. 행운의 숫자 : 83, 96

寅

38년생 쉬워 보여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50년생 문제를 제기하는 이의 뜻이 옳으니 수용량이 좋다. 62년생 근린 관계의 공동 문제에 관심을 갖자. 74년생 옛 연인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2, 79

卯

39년생 인정에 이끌려다 보면 아무런 일도 못 하느니라. 51년생 간섭은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이라. 63년생 경쟁자의 도발이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75년생 근본을 따져 보면 원리가 보이나라. 행운의 숫자 : 45, 72

辰

40년생 학연으로 인한 기쁨이 크도다. 52년생 무리하면서까지 구박을 맞을 필요는 없다. 64년생 항해하기에 딱 좋은 기상 상태이나 일시적일 뿐이다. 76년생 발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 지어라. 행운의 숫자 : 17, 20

巳

41년생 화를 내는 것이나 참는 것이나 슬픈사이다. 53년생 각오했다면 크게 도모하라. 65년생 물질보다 정신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더 낫다. 77년생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인물로부터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 53, 79

午

42년생 상대의 말을 마음에 담아 둘 필요는 없다. 54년생 환담은 인간 관계의 윤활유가 되어 줄 것이다. 66년생 여러분 속에 있는 미운 사람을 자연스럽게 대해 줘라. 78년생 생각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행하라. 행운의 숫자 : 12, 76

未

43년생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을 것이다. 55년생 충의를 무시하지 말고 정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67년생 알뜰한 가게 운영이 절실할 때다. 79년생 거래는 거래이니만큼 대충 넘어갈 일도 아니다. 행운의 숫자 : 85, 84

申

44년생 핑계 대지 말고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56년생 배우자의 일을 잘 풀어나가도록 하라. 68년생 약점을 시인할 때 자신의 여자도 보이느니라. 80년생 어른들 간의 불협화음을 소문내서는 안 된다. 행운의 숫자 : 06, 39

酉

45년생 굳이 남을 통해서 알려 하지 말고 직접 문의하라. 57년생 대어는 놓치고 퍼리미만 잡은 꼴이니 재시도하라. 69년생 경계심은 언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 81년생 좋은 이성운이 비추니 행복이 붙어다. 행운의 숫자 : 63, 85

戌

46년생 옛일을 문제 삼을 수 있다. 58년생 관세를 알아차린 듯 하므로 즉시 변경하라. 70년생 경쟁자의 방해가 시작되나 큰 타격은 없다. 82년생 배경만 믿고 함부로 남보다 보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3, 54

亥

47년생 초면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59년생 처럼만 거창했다가 마무리는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71년생 일이 순조롭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 83년생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원칙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78, 75

www.cafe.daum.net/sajoo114 ☎010-9790-8237

신버림 **강달달 아동제자**

만은연으로 친필님의 열정하심을 시원하게 전해드립니다.

☎010.5523.0510 062.675-0510